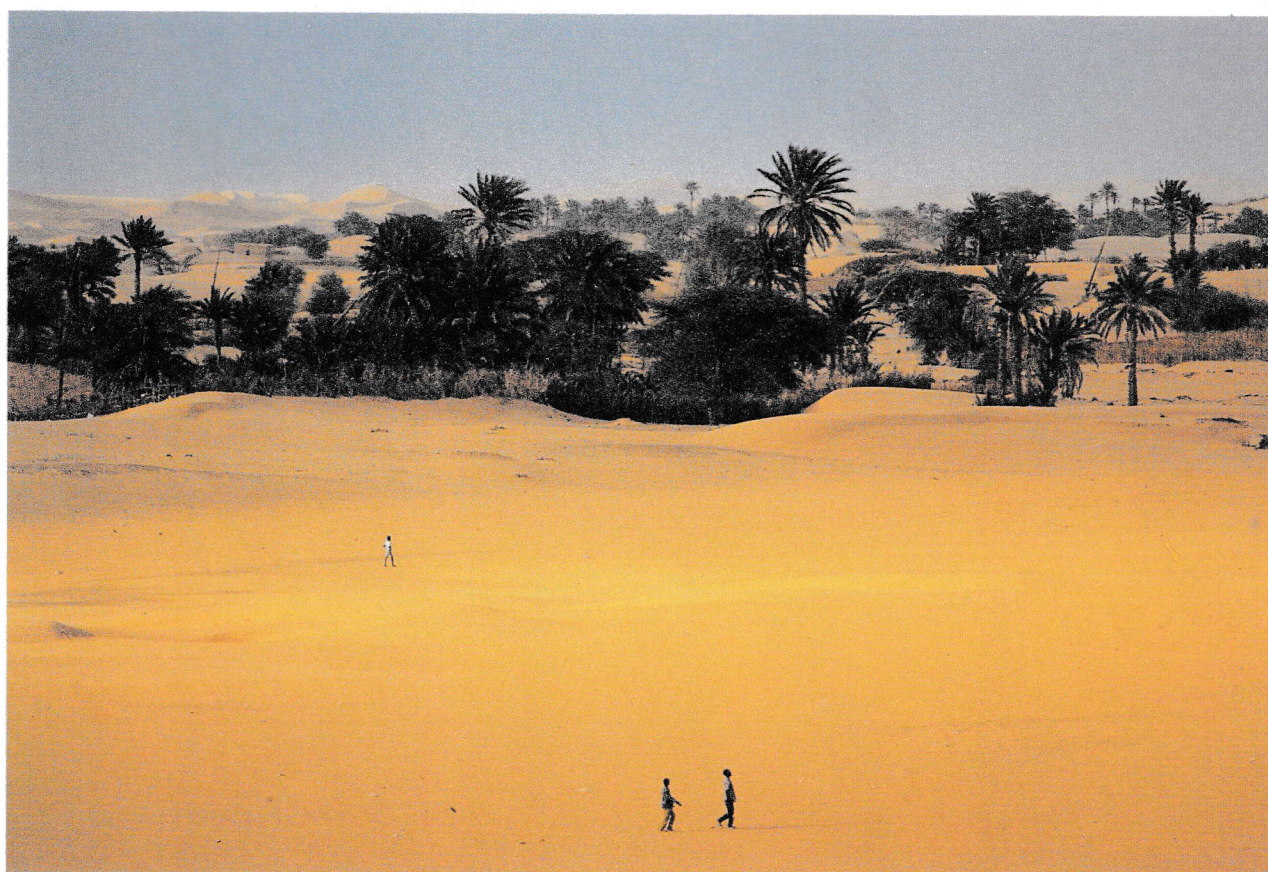




# 천년의 기억 사막의 도서관

사막과 도서관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하라로

들어가는 길목 생게티시에는 중세 아랍의 문화적 변영을 간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그렇다고 그리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다. 사막의 모래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뒤뜰의 작은 방에 불과하지만 도서관 안으로 한 발짝만 들어놓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11세기에 필사되었다는 코란과 당시 학문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다. 글 | 사진 레미 베날리



阿莫德家庭图书馆的馆长莫雷·阿莫德正在翻看一本旧的古兰经,几个孩子也好奇地围在他身边。



**正是传统给了这些人们勇气和力量去克服困难。他们觉得自己被赋予了这项神圣的使命,保护一个民族的过去。从父亲到儿子,多少个世纪以来,这些馆长们深知他们就是时间的主人和这些珍宝的捍卫者。**

修复这些人类的珍贵财富。图书馆的主人们也都在当地居民的支持下决心完成这个项目。这些书籍应该在村子里面修复并保留在这里,虽然这座城市正在被风沙慢慢地侵蚀,沙尘每天都不得不清理。

正是传统给了这些人们勇气和力量去克服困难。他们觉得自己被赋予了这项神圣的使命,保护一个民族的过去。从父亲到儿子,多少个世纪以来,这些馆长们深知他们就是时间的主人和这些珍宝的捍卫者。

自从35年前穆罕默德·麦默德出生的时候,毛里塔尼亚和欣盖提城就不断遭受干旱的威胁,脆弱的黏土城墙不断遭受风沙的袭击。穆罕默德害怕他的家乡就要受到和瓦丹城一样的命运。瓦丹城是坐落在欣盖提东北100多公里的沙漠深处的一座“死城”。它在14—18世纪曾是毛里塔尼亚最繁荣的地方。那里现在已经被沙漠覆盖,曾经统治瓦丹城的伟大力量已经变成了一个被乡愁缠绕的幽灵,每天只能隐藏在废墟背后躲避狂风……

在从叔叔手里接管的小酒吧里,穆罕默德·麦默德正在为一群游客准备薄荷茶。他凭直觉感激那些曾经有意无意地为圣城传播名声的游客。作为一种古老的传统,这里的人们一般要奉茶三次。根据一个古老的阿拉伯谚语,第一杯茶像爱情一样甜美,第二杯像生活一样苦涩,第三杯则像死亡一样无情。

夜幕慢慢降临。就要到最后一次祷告的时间了。当第一颗星开始发出耀眼的光芒,穆罕默德·麦默德站在图书馆的平台上凝望古城欣盖提。他想象着欣盖提最繁盛的时刻,他的祖先们在这所房子里款待著名的诗人和哲学家们,拥有1000头骆驼和500个领驼人的商队从这里经过,把金子从塞内加尔和加纳运往西北非。穆罕默德面向东方虔诚地弯腰敬拜。每天晚上,就在这里,身着蓝衣的男人们向真主祷告,这些蕴含人类文明的伟大书籍永远不会消失在沙漠里。□

责任编辑/单琳 图片编辑/何亮 版式设计/李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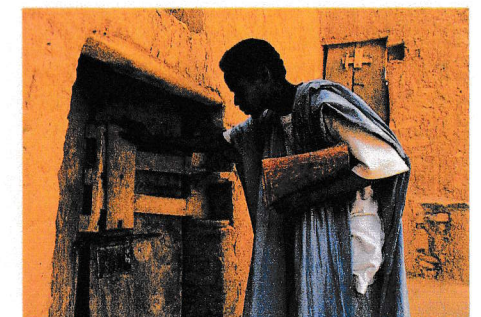
1996년 유네스코는 생게티를 곳곳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게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아마니 가문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도서관장 마무가 도시로부터 찾아온 친구에게 조상들의 전통 그대로 민트차를 대접하고 있다(왼쪽). 아마니 도서관의 문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귀한 책들이 숨어 있다(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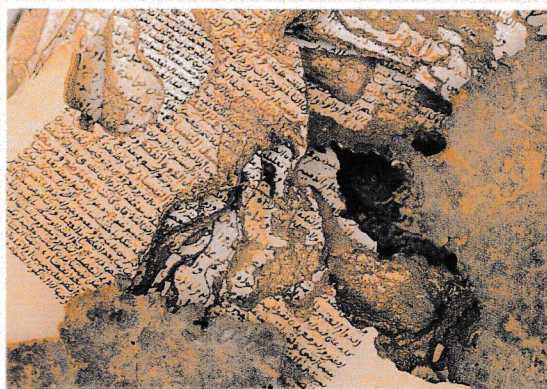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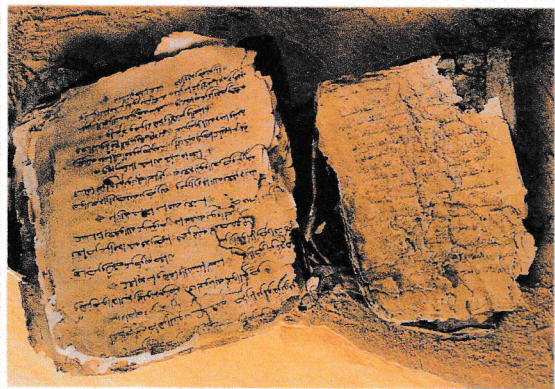


책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만들어질 당시의 화려한 금빛 치장 위로는 먼지가 수북이 앉았으며 푹푹박 잉크로 눌러 썼던 글씨는 곰팡이로 색이 바래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책보다 늦게 태어난 젊은 주인들이 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시간의 수호자

올해 30세인 모하메드 마무(Mohamed Mahmoud)는 아마니(Hamoni) 가문의 후예다. 최근 아마니 가문의 도서관장을 맡게 된 그는 얼마 전 인구 60만 명이 사는 모리타니의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에서 돌아왔다. 자신의 선택으로 생게티로 돌아온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분명 누악쇼트는 답답한 마을을 떠나 현대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모리타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일자리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임금이 낮습니다. 안락함과 희망만 있을 것 같은 누악쇼트에는 오히려 빈곤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마무는 누악쇼트에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생게티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렸다. "물질적 편안함이 정신적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죠." 마무가 물질적 성공을 뒤로하고 생게티로 돌아온 이유이다. "생게티는 내 땅이자 내게 책들을 물려준 15대에 걸친 조상들의 땅이





기도 합니다.” 마무는 자신이 생계티로 돌아온 이유를 어떤 논리적 설명도 필요 없는 그저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

마무를 따라 아모니 가문 도서관에 들어서니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있다. 300미터가 넘는 모래 언덕 밑에서 채취한 진흙으로 만든 도서관 내부의 벽은 이 빛을 반사시켜 책들을 신비롭게 감싸고 있다. 수세기를 버틴 책들이 모여 있는 좁은 공간이라 해도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케케묵은 냄새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현대적인 기술보다 뛰어난 이 곳 사람들의 지혜는 수백 년 전의 가치를 지금까지 보존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다.

아모니 가문 도서관에는 250여 건의 필사본이 있으며 이 중에는 6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다. 아무런 질서 없이 쌓여 있는 책들은 언뜻 보기에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젊은 도서관장이 그 책들을 다루는 모습은 엄숙하기까지 하다. 그는 조심스레 서너 권의 책을 보여 준다. 이슬람에 관한 몇 권의 책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도 전에 쓰여진 것들이며 문법서는 프랑스 최초의 사전보다 한 세기 앞서 쓰여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 준 책은 이슬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코란이다. 수세기 전 그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필사하면서 예언자 마호메트와 대화를 나누었으리라. 코란을 건네는 그의 손길에서 책에 대한 경건함과 예절을 느끼는 건 그



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백 년 전 필사된 코란이 아직도 생명력을 갖도록 한 힘은 바로 코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이었다. 아모니 도서관에는 책 외에도 가문의 몇 가지 유품이 보관되고 있는데 책과 함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장충은 모리타니의 영토를 빼앗으려 쳐들어왔던 프랑스와의 전쟁 때 마무의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고귀한 책들을 살린 장충이 책들과 함께 도서관 한켠을 장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모니 가문 도서관에서 몇 구획을 더 가면 마을을 둘로 나누는 큰 대로가 있고 그 한편에 아보트(Habott) 가문의 도서관이 있다. 생계티에서 가장 귀중한 서적을 보존하고 있는 이

오랜 세월 동안 곤충이 잡아먹어  
이제는 글씨를 알아보기조차 힘든  
14세기의 코란. 생게티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 그 수가 제일 많은 것은 단연  
코란이다(맨 왼쪽, 왼쪽). 언제  
쓰여졌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책들은  
아랍 세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아래). 이곳 도서관의  
책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수북이  
쌓여 있다. 마무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보관돼 오던 책들을 읽고 분류하느라  
하루 온종일을 아모니 도서관에서  
보낸다(왼쪽 아래). 생게티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아보트  
도서관 내부(오른쪽). 이 곳의 책들은  
최근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현대식으로 깔끔히 정리되었다.  
하지만 생게티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 아모니 도서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다.



도서관에는 무려 1500여 권의 고서가 있으며, 이 중에는 1059년에 필사된 책도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사일로의 미사 전례서(典禮書)는 이보다 단지 8년밖에 앞서지 않는다. 아보트 도서관의 책들은 판지로 표지를 씌웠고 철제 책장 속에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책을 보존하는 작업은 생게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대사관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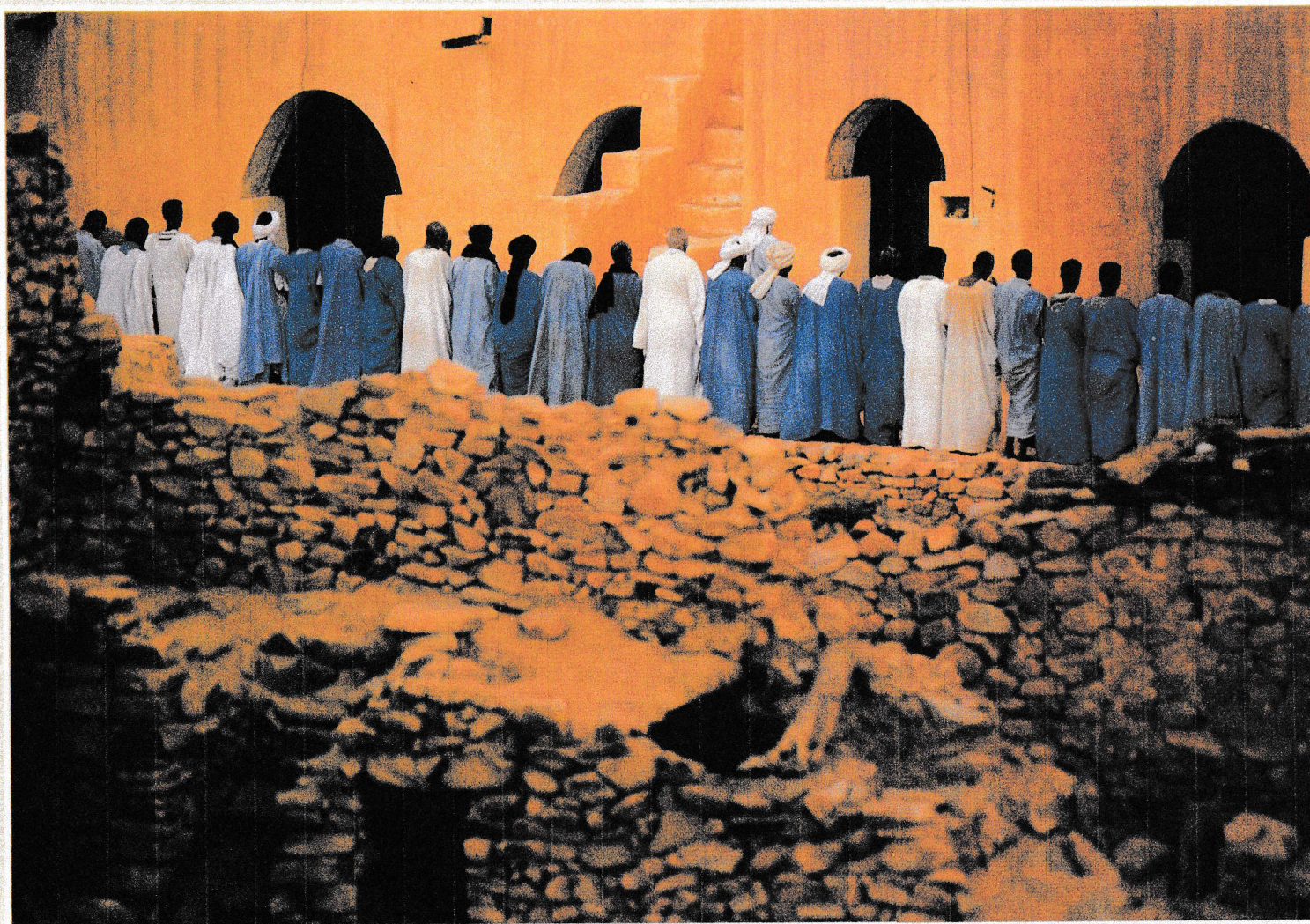
마무가 생각하기에 책장과 같은 장비의 후원은 고마운 것이기는 하나 생게티의 유산을 제대로 살려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원고가 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책들은 부서지고, 가죽은 벌레들이 좀먹지

요. 어떤 책들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책들의 진정한 복원이지, 책들을 꾸미고 분류하기 위한 장비들이 아닙니다."

마무의 말이 마치 돈 몇 푼으로 생색내려 하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로 들리기도 한다. 오해일까? 하지만 지금 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정성어린 보살핌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책들은 다른 곳에서 복원되지도 또 장사꾼에게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책들은 세월의 흠집을 감수하면서라도 항상 모래와 바람의 위협이 있는 바로 이 곳, 생게티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 낼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책을 보존하게 하는 힘은 전통을 중시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이다. 이들은 한 민족의 과거를 보존하는 것 자체를 신성한 임무로 여기고 있으며 그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몇 세기에 걸쳐 도서관 관리의 책임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졌고, 이들은 소중한 유산을 지켜 내면서 자신들이 시간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생게티는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고 부서지기 쉬운 진흙 벽은 끊임없이 모래의 공격을 받아 왔다. 마무는 자신의 고향 생게티가 우아단느(Ouadane)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아단느는 생게티로부터 북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한때 생게티와 경쟁할 만큼 번성했던 도시다. 사람들이 우아단느의 소



이슬람교를 믿는 생게티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  
도서관의 책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원은  
언젠가부터 기도의 첫 구절이 되고 있다.

중한 유적을 버리고 누락쇼트로 떠나가는 동안 우아단느의 과거는 모래 속으로 파묻혀 갔다. 우아단느는 이제 노스텔지어에 불과하며 모래 바람은 이 도시의 소멸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다.

마무는 숙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여관에서 여행객들에게 민트차를 대접한다. 그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 여행객들이 없었다면 도시의 명성은 유지되지 못했으리라. 마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차 마시는 방법을 여행객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차는 세 번에 걸쳐 마시게 되어 있다. 아랍 세계의 격언에 따르면, '첫 번째의 차는 사랑처럼 달콤하고, 두 번째의 것은 인생처럼 쓰디쓰며, 세 번째의 것은 죽음처럼 가혹하다'고 한다. 몇 백 년 전에 고서들의 번영이 첫 번째 모금이었다면 지금 생게티는 두 번째 모금을 맞고 있을 수도 있다. 마무와 같은 후예들의 사랑이 없다면 사막의 도서관은 곧 죽음처럼 가혹한 세 번째 맛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도서관의 책들에게 죽음이란 사막의 모래 깊숙이 파묻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이것을 지켜 보고 있기에 저 책들의 가치는 너무 고귀하지 않은가.

이제 곧 마지막 기도를 올릴 시간이다. 마무는 도서관 테라스에 서서 생게티를 바라본다. 첫 별이 떠올라 빛나고 있다. 그는 이 도시의 영광이 극에 달했던 때를 상상해 본다. 그의 조상들이 지명한 시인과 철학자들과 함께 하던 무렵, 1000마리의 낙타와 500명의 낙타몰이꾼들을 거느린 대상들이 세네갈과 가나에서 금을 싣고 서방으로 향하던 그 때를 말이다. 마무는 동쪽을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바로 여기서 생게티 사람들은 매일 밤 기도를 올린다. 인류가 남긴 위대한 책들이 사막의 모래 밑에 파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열원을 담아서. ○

미국에서特派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진가 레미 베날리(Remi Benali)는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으며 1988년 이후 세계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과학, 스포츠, 세계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진에 담아 왔다. 요즘 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소재는 세계 각지에 남아 있는 과거의 전통과 의식이다.